

복지 사각지대, 통장의 역할 중요하다

영등포구, 관내 통장 전원 561명 대상으로 '복지도우미 교육' 실시



지난 7일 영등포구 양평동의 자원순환센터는 노란조끼를 입은 132명의 중년의 여성과 남성들로 가득 찼다. '복지도우미'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영등포구의 통장들이 함께 하는 자리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통장 전원

561명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복지도우미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관내 통장 전원을 복지도우미로 위촉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번 교육은 통장들에게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알려주

고, 복지분야에서 민관협력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10/7, 10/17, 10/30, 10/31에 진행하며,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복지도우미는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며, 저

소득가구와 위기가정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구에서 제작한 복지정책 길라잡이 책자를 참고로 대상별로 필요한 복지제도를 소개하기도 하며, 이들을 관할 동주민센터, 구청 희망복지지원팀(☎2670-3957~8,3982,3944),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신고해 연결하게 된다. 복지업무 담당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복지서비스와 지원제도를 연계한다. 지난 봄 신길3동 주민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방역작업을 하고 병원에 데려가 도움을 준 일화는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준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는 민과 관이 협력해 함께 노력해야 비로소 해결 가능하다."며 "최일선의 현장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는 복지도우미인 통장님들이 살맛나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사기자

'첫 동포 출신' 재외동포재단 이사 - 김영근

해외서 30년 살며 느낀 동포사회 바람을 담아 내겠다

"재외동포재단이 700만 재외동포를 지원하며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외동포재단 이사로 임명된 김영근(58) 신인 사업이사는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재단과 재외동포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라고 이 자리를 맡긴 것 같다"고 말했다.



단 사업으로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재외동포 사회에 30년간 있어 보니 동포사회에서는 한결같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재단이 잘 풀어가야 동포 사회도 잘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같이 협력해 서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업이사로써 중요하게 할 일은 한상대회와 차세대 관련 행사 홍보입니다. 첫 출근 후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더군요. 시간을 두고 머릿속 아이디어를 정리해 실행에 옮겨보고 싶습니다."

김 이사는 "세계한인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됐다"면서 "재단의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동포 다수의 만족과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연합

그는 "우선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크지만 내가 동포 출신이라 재외동포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부담감과 두려움도 적지 않다"며 "모든 재외동포 분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도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 업무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재미동포 출신이다. 경기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1982년 미국 버지니아주(州)로 이민을 갔고, 현지에서 'YK리얼티'라는 부동산업체를 운영했다.

2003~2006년 워싱턴DC 한인연합회장과 2005~2006년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을

지냈다. 2년 전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재외동포 NGO인 세계한인네트워드를 이끌어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30년간 재미동포로 살며 피부로 느껴왔던 재외동포 사회의 바람을 재단 사업에 담아 보고 싶다고 피력했다. 워싱턴 한인회장으로도 있을 때는 재단을 향해 쓴소리도 많이 했지만 이런 경험과 고민을 이제는 재

금천경찰서 경찰관 1명이 1일

2주민과의 대면 활동 실시

금천경찰서에서는 2014년 8월 1일부터 경찰관 1명이 1일 2주민과의 대면 활동하는 "우리들만의 청렴 112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 소통을 위해 지역경

찰 등 외근활동 시 1일 2주민 만나기, 형식적□인위적 주민대면 탈피, 친절이미지 강화, 기간 중 만남 주민과의 다양한 포즈 등 인 증포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서울금천경찰서 청문감사실

동작경찰서, 국민의식 개선 자발적 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

- 비정상적 정상화!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시작됩니다.
- 기초질서 지키는 서울시민, 한류의 대표주자입니다.
- 안전한 서울의 미래, 기초질서 지키기가 정답입니다.
- 경미한 기초질서 위반의

방지가 더 큰 범죄를 불러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쓰레기 등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반행위' 자료제공: 서울동작경찰서 생활질서계장 손준희

여권 신청 10월 1일부터 더욱 간편해져

외교부는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금년 10월 1일부터 경기군포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97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여권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과 함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59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

행하게 된다.

외교부는 2016년까지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인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여권신청 구현을 위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및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총 236개)에 대해서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행정기관 간

가족관계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미성년 여권신청자도 등록기준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성년자인 여권발급 신청자는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의 3분의 1 임대료로 낸다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주한 사업자들이 매출의 3분의 1 가량을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예상치보다 최고 2.6배나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인천공항공사 상업시설 임대료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료 수입은 615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임대료를 지출한 곳은 롯데면세점이었다. 롯데면세점은 롯데호텔 2124억원, 롯데DF글로벌(옛 AK글로벌) 1005억원 등 3129억원을 해마다 인천공항에 임대료로 납부했다. 단일 법인으로 보면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가장 많다. 호텔신라는 2곳의 매장에서 인천공항에 해마다 2478억원을 지불했다. 이 외에도 한국관광공사의 543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했다.

이는 각 사업자가 해당 면세점에서 한해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회 국토 위 소속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내 면세점의 연간 매출은 모두 1조 9468억원이었다.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율은 31.6%였다. 통상 상업시설이 매출액 대비 20% 이하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2008년 호텔신라의 입찰가를 보면 면세점 한개 점포에 1546

억원을 입찰해 낙찰받았다. 당시 인천공항의 예상가격은 690억원이었다. 또 다른 곳은 예가는 362억원에 불과해 예가 대비 2.6배를 써낸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롯데 역시 2곳에서 모두 예가 기준 2.0~2.2배를 써내 낙찰받았다. 예정가격은 발주처가 예상하는 낙찰가격이다. 업체는 발주처가 이 가격에 낙찰받으면 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라고 해석이다. 즉 인천공항이 예상가격의 최고 2.6배에 이르

는 수익을 거둬 들였다는 의미다. 임대료가 높아지는 데는 국내 면세업계간 입찰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돼서다. 해외공항을 입찰하기 위해선 인천공항 입찰 이력

이 절대적이다.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면 인천공항 입찰이 기본

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인천공항이 사업자를 최고가낙찰제로 선정하다보니 금액이 무분별하

게 증가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변 의원은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수준이 높은 것은 최고가 입찰로 인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입찰과정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입찰경쟁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 있었던 환승라운지 입찰 과정에서 기존 운영업체인 C업체는 수익의 71%를 임대료로 제공하겠다고 입찰해 낙

찰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조정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서비스 수준을 낮추고 요금을 5.7배 인상하는 계획을 제시해 낙찰자 지위가 취소됐다. 결국 2개월 간 환승라운지가 운영되지 않아 공항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다. 반면 인천공항은 매년 높은 수준의 상업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상업수익은 8220억원으로 비행공수익의 81%에 달했고 전체 수익 대비 51%를 차지했다. /지영호

'깨끗한 환경, 살기좋은 우리동네' 이제는 중국동포들이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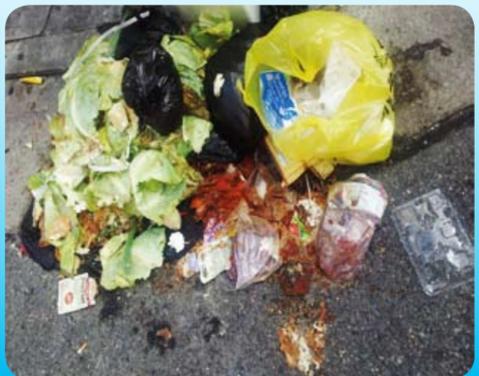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정해진 날에 배출해야 한다. 눈 비가 내릴 때는 날씨가 개인 후에 내 놓는다. 도로변 가로수나 전선주 밑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젖은 쓰레기는 말려서 버려야 한다.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무단투기!
내 마음부터 시작!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지정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 해야 한다. 적은 량의 쓰레기를 잠깐 보관시에는 냉동시키거나 식초나 원두커피 찌꺼기를 뿌려준다.



참여문의: 02-2637-0814, 010-6866-0815